

30대 시절의 열정과 고민 담긴 두 권의 책

책으로 쓰는 자서전 — 14

김병익 | 문학평론가

“《문단 이면사》를 연재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 먼저 한국 문학사에 대한 광범한 기초 지식을 습득했고, 식민지 시대의 문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명을 얻었다. 저항이든 부역이든 나라 잃은 지식인의 아픔에 내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의 정황이 비록 나라를 되찾기는 했지만 작가와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 그에 대항하는 문학인들의 싸움이 반세기 전과 별다를 바 없다는 고통스러운 인식 때문이었다.”

1971년 유학에서 돌아온 김주연을 예정대로 영입해 이른바 ‘문지 4K’를 이루면서 《문학과지성》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영향력도 커진 것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우리는 문지에 대한 여러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처음 의심받은 것은 문지의 간행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황인철 변호사라는 실체가 확인하기 때문에 곧 불식될 수 있었다. 비판의 중심은 문지가 엘리트주의 혹은 ‘서울대파’라는 점이었다. 우리는 이 지적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인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쪽이었다. 문학이란 어차피 좋은 작품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엘리트주의로 표현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지 4K’ 공동저서 펴내

편집동인이 모두 서울대, 그것도 문리대 출신이어서 ‘서울대파’라는 것도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서울대파’란 말의 함의가 서울대 출신 작가들 쪽으로 우리의 선호가 편향됐다는 주장이라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었다. 문지가 평가하는 소설가와 시인들 가운데는 서울대 출신이 적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서울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작품을 쓰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고 더구나 문지파 작가의 압도적인 숫자가 비서울대 출신들이었다. 좀더 근본적인 비판은

문지파가 이른바 ‘순수파’며 그래서 문학의 현실참여에 대해 무기력하고 민중론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도출된 것일 텐데, 그 비판이라면 우리의 문학적 관점과 주장이 그런 것이기에 굳이 변명할 것은 아니었다.

문지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의 근원은 요즘 말하는 바의 ‘문화권력’을 문지가 너무 크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적어도 반대가 없어야’ 원고를 청탁하거나 제수록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필자 선정에 매우 까다롭게 했고 그 때문에 그 바깥의 문학인들에게서 반발과 경원을 많이 샀을 것이다. 지방 국립대학 교수며 시인인 한 분이 어느 자리에서 “대한민국 문단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나를 짚기에 내가 무슨 말인가 멀뚱해 있자, 그는 내가 가장 큰 신문의 문학 담당기자고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의 편집자일 뿐 아니라 스스로 평론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객관적인 위치로 보자면 부인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그 후 나는 그 시인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거니와, 식사를 하자면 차를, 차를 마시자면 전화로 이야기하자며 시인·소설가들을 대하면서 나름대로 신중해온 내 처신에 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문지 4K’의 공동 저서가 나왔다. 1972년 3월 민음사에서 간행한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이 그것이다. 이것 역시 김 현의 발의와 교섭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 현의 불문과 선배인 민음사의 박맹호 사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건설관계 서적에 약간의 문학책을 끼어넣는 출판실적으로 사세가 미약한 형편에 독자도 없고 문단의 관심도 박약한 평론집, 그것도 4인 공저의 두터운 평론서를 간행해준다는 것은 모험적인 결단이었다. 커다란 눈동자를 굽직한 선으로 살린, 역시 김승옥의 표지 장정에 신국판 443면의 이 책은 지금 봐도 호화로운 하드 커버와 묵직한 볼륨으로 신진 비평가들의 패기에 맞먹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1960년대 초기의 열기와 감동, 우리들의 문학적 충동은 이 시대의 들끓는 분위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로 시작되는 유창한 서문은 김주연이 썼는데, 그는 이 글에서 네 비평가들이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열과 고민을 안고 있는” 공통성을 강조함으로써 문지 동인들의 연대성을 포출시키고 있다. ‘한국문학이론의 기본’ ‘방법론의 실제’ ‘작가와 가능성’ 등 3부에 걸쳐 문학과 방법론, 작가·작품론의 글 32편은 대부분 동인 서로가 읽고 동의한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그 필자의 이름을 글의 말미에 적음으로써 비평적 개성보다 공통성을 더 강조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 해 동안 간행되는 평론집이라고는 몇 권밖에 안되는 당시의 처지에서 이 책의 반응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었고 타블로이드판의 《주간 한국》은 두 면에 걸쳐 소개해줬으며 신문마다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 책을 통해 ‘평단의 4김씨’란 이름은 더 굳어지고 우리의 결속력도 자연스럽게 두터워졌을 것이다. 책도 잘 나가 머지 않아 중판을 찍었는데, 박맹호 사장은 이 책이 민음사가 문학도서 간행에 주력하게 된 ‘기폭제’가 됐다고 술회한 바 있다.

나는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에 이어, 이 '공저' 못지 않게 내 '단독' 첫 책으로 자부하고 싶은 두 권을 잇달아 출판했다. 1973년 10월 일지사에서 간행한 《한국문단사》와 이듬해 9월 민음사에서 내준 《지성과 반지성》은 나 혼자의 이름으로 나온 나의 '첫 저서들'이었다. 여기에 실린 글들에 대한 회상은 내게 각별한 것이어서 지금도 30년 전의 이 낡은 책들을 때때로 다시 집어보면서 30대 그 젊은 열기와 아픔들을 되짚곤 한다.

〈문단 반세기〉 연재해

《한국문단사》는 1973년 4월부터 7월까지 《동아일보》 문화면에 〈문단 반세기〉라는 제목으로 석달 동안 연재한 글이다. 당시 신문들은 권력의 가혹한 억압으로 비판적인 기사와 논설을 거의 쓸 수 없었고 그래서 지면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느 신문보다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던 《동아일보》는 이른바 '읽을거리'로 독자들의 시선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편집국장의 이런 방침에 따라 문화부는 영화 반세기, 가요 반세기 식으로 연재물을 기획했다. 당시의 문화부장 이석렬씨는 내게 문단 반세기를 쓸 것을 지시했고, 나는 이런 가벼운 읽을거리 연재에 회의적인 데다 문단사 정리라는 어려운 작업에 자신할 수 없어 사양해봤지만 그 작업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최남선의 신시운동에서 출발하는 〈문단 반세기〉였다. 문학사는 몇 권 있었지만 문단사 서술을 위한 참고도서는 별로 없었기에 내 작업은 예상보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다. 그랬기에 나는 원로작가들과 인터뷰하고 초창기의 목은 신문들과 잡지 영인본들을 뒤지며 전기, 회고록, 연구서, 이면사 등 자료가 될 만한 갖가지 것들을 찾았다. 구성도 써가면서 정리해 갔는데, 20년대의 초창기 문단에서 원고료제 채택, 검열과 필화, 작가들의 필명 사용, 표절, 신여성과 기생, 문화병 등에 관한 글은 아마도 이 방면의 첫 소개지 싶다. 그러면서 내가 전체적인 방향에서 신경 쓴 것은 문단사적인 정황과 사건 서술로 뛰어난 작가·시인들의 문학적 성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염상섭, 한용운, 김소월에서 채만식, 이 상, 김유정에 이르기까지 내 판단으로 식민지 시대의 중요한 작가들은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며 문학적 성과 속에서 그들의 개인사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 연재는 의외로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고(어디선가 한 신진 평론가가 고교 시절 이 연재를 읽고 문학을 하게 됐다고 쓴 것을 본 적이 있다) 연재가 끝나고서 당시 편집국장인 김성환씨가 '특별상' 이던가를 쥐겨려해줬고 일본의 교포신문 《동일일보》가 번역·연재해 마침 일본에 파견나가 있던 형이 스크랩해 내게 전했다. 무엇보다, 그 집필은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내게 한국 문학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문인들에



문지동인들은 적어도 반대가 없어야 원고를 청탁하거나 재수룩하다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문인들의 반발과 경원을 사기도 했다. 그러는 가운데 1972년 4월 '문지4K'의 공동저서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이 나와 동인들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다. 사진은 공동저서를 상찬한 1972년 동인들의 모습.

대한 깊은 이해와 감명을 얻었다는 점이 큰 소득이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한용운에 대해 쓰면서 나는 한없이 가난하고 축고 외롭던 식민지 시대의 우리 문학인들이 얼마나 정열적으로 자기 시대와 싸우며 글을 쓰고 언어의 세계를 넓혀갔고 그래서 우리 근대문학을 창조할 수 있었던가를 돌이키며 감동과 전율의 눈물을 흘렸고, 친일문학에 대해 쓰던 한밤에는 긴 터널 속에 갇힌 듯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언제나 가져질지 절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식민지 시대와 1970년대적 상황의 유사성에 고통스러워해

저항이든 부역이든 나라 잃은 지식인의 아픔에 내가 것처럼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의 정황이 비록 나라를 되찾기는 했지만 작가와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 그에 대항하는 문학인들의 싸움이 반세기 전과 별다름 없다는 고통스러운 인식 때문이었다. 그때 우리는 독재 권력의 별거벗은 힘 아래 괴롭게 신음하고 있었고 우리 아버지대의 그 설움이 지금 우리 자신의 상황에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의 문단사에 힘을 많이 기울인 부분은 작가의 저항과 함께 가령 이광수의 친일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 기사를 보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춘원의 딸 이정화씨가 항의 편지를 보냈다. 나는 답신을 통해 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혔고 후에 귀국한 기회에 나를 만난 그 분도 나의 설명을 잘 이해해줬지만 그때의 내 고뇌는 〈작가와 상황—친일파 작가에 대한 변명〉이란 에세이로 술회된 바 있다.

〈문단 반세기〉는 당시 일지사 주관으로 근무하던 이기웅씨의 눈에 띄어 내게 출판 제의를 해왔고 나는 즐겁게 동의했다. 그 출판 보고를 했더니 회사는 기자로서 신문에 쓴 것이기에 인세는 신문사가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자비 출판'이라는 거짓 보고로 출판허가를 신청했다. 그해 10월에 마침내 내 첫 단독 저서가 간행됐고 그 인세로, 나는 버르고 버르던 응접 세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